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8, 느헤미야 5-6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8회기 느헤미야 5-6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에서 반대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내부의 반대가 있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잘못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 이제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 대하여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2** “우리 아들과 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살자.” **3** 또 “우리가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려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잡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밭과 포도원에 대한 세금으로 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5** 이제 우리 육체는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을 강제로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중에 이미 종노릇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부의 반대를 처리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이자 불의의 잘못도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는 네 가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땅은 없지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먹여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필요성이 너무 커서 이들은 단지 음식을 사기 위해 집과 밭을 저당잡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왕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엄청난 이자 비용 때문에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자신의 땅과 자녀를 담보로 삼아 유대인 형제자매들을 착취하는 부유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을 기억하신다면, 부역의 종노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나 자매가 너무 가난해지면 한동안 부유했던 형제에게 자신을 팔 수 있는 종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년이나 안식년에 땅과 백성을 돌려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형제자매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것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는 불의가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아와 노예 생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불의의 죄가 드러나 느헤미야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 더 싸우기 힘든가요? 외부의 반대인가, 내부의 반대인가? 때로는 내부의 반대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와, 우리는 느헤미야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6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7** 나는 스스로 의논하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고소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대항하여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8**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유대인 형제들을 힘껏 도로 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우리에게 팔려고 파는도다.” 그들은 침묵했고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9**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일은 좋지 않다. 너희는 우리 대적 나라들의 조롱을 막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 게다가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관심을 버리자.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화를 냈다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의에 직면한 첫 번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3장에서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성전의 한 방에 살도록 허락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화를 내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글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 예수님께서서 화를 내시고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시장과 사업장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것이 이기적인 분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분노가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의로운 분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로 귀족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학대한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인 종을 파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출애굽기 21장 8절).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의 침묵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뇨. 그는 고치라고 하더군요. 그는 정정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지도자는 저지른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네,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가족이 있습니다. 글썄, 가족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불의 중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정부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이 정확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불의에 행동하여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합니다. 잘못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가져간 것을 반환합니다. 심지어 이자를 요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서술적인가 아니면 규정적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현대 상황에 적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학자는 현대 주석가들이 느헤미야 5장에서 가족 계획, 올바른 분노의 표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모범적인 삶, 세상을 보기 전 교회의 간증, 약속 지키기, 권리를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적절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느헤미야 5장의 주요 적용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적용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불의에 대한 비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참여하라는 권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말했듯이 실제로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부터 시작하여 모범을 보입니다. 은 40세겔입니다.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주관하였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나도 이 성벽 공사에 힘썼으나 땅을 얻지 못하였고 나의 종들도 다 모여서 공사를 하였느니라. **17** 내 식탁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 외에 유대인과 관리들까지 150명이 있었습니다. **18 이제 내 비용으로** 드매일 준비된 것은 소 한 마리와 좋은 양과 새 여섯 마리와 열흘마다 온갖 종류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에게 식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섬기는 일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입니다. **19**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두 번의 임기 동안 총독을 역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는 12년 임기였고, 두 번째 임기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봉사한 때는 기원전 433년부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통치 기간인 기원전 42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이자 자신의 백성과 일체감을 느끼는 지도자로서 그는 총독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식량 수당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가난하게 살 때 자신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자란 루마니아는 가난한 나라, 공산주의 정부가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식량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카드를 주었고 우리는 그 카드를 가지고 가게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빵과 우유와 고기를 언제 샀는지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에게 빵과 우유, 빵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독재자가 죽은 후 그의 백성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동안 독재자가 금으로 장식한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하게 살았고 그의 백성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쁜 리더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유다 총독들의 목록을 재구성한 이스라엘 고고학자 나마드 아비가드입니다.

보시다시피, 538년 이후에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세스바살, 스룹바벨,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경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는 약 330년까지 이어지는 불라, 인장, 파피루스, 동전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느헤미야가 눈에 띕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내 유익을 위하여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키드너는 느헤미야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예시한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벽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그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느헤미야는 다시 반대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혜롭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원수의 계획을 간파하십니다. 6장 **1**절부터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나머지 대적들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성 안에 빈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더니(그때까지 내가 성문에 문을 달지 아니하였었으나) **2**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야 학게비림에서 함께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3**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노라. 왜 내가 일을 멈추고 너희에게 내려갈 동안에 일을 멈추어야 하겠느냐?” **4** 그리고 그들이 네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고, 나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원수가 그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적은 배가됩니다.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적의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조금 북쪽에 있는 일종의 중립지대에 있던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초대가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얘들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위원회 회의에 가기 위해 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업가들이 비즈니스 미팅으로 인해 연간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교회 집회에 대해 모른다.

아마도 교회 집회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만이 아니라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 사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방합니다. 마찬가지로 5절부터 시작합니다.

5 이와 같이 산발랏도 다섯 번째로 공개 편지를 손에 들고 그 종을 나에게 보냈습니다. **6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유대인들이 반역하려고 꾀한다는 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소문이 나고 게셈 도 말하노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벽을 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비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는 반역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7 그리고 당신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관하여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의논합시다.” **8** 그래서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기 때문입니다.” **9** 그들은 모두 “그들의 손이 역사에서 떨어져서 이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이제 ~~썩~~손에 힘을 주소서.

적이 전술을 바꾼다. 이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중상을 합니다.

공개 서한에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손을 물 뿐 아니라 그 손을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손을 자르는 것.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선지자의 설교를 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이 죄는 처음 죄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Geshem은 소문을 낳고 퍼뜨 렸습니다.

산발랏의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라 이는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충실한 자들의 외침이니라.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은 그의 영혼이 슬픔으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메아리칩니다. 시편 119:28. 내 손을 강화하십시오.

이제 적이 '아, 그래, 우리는 포기한다'고 말할 것 같나요? 아니요. 반대자들은 계속 위협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는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서 함께 모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러 오니 성전 문을 닫자.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11**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드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12** 내가 깨달은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13**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은 나로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하여 죄를 범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욕을 주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14** 나의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여선지 노아다와 나를 두렵게 하려 한 다른 선지자들을 기억하소서

흥미로운 점은 델리아의 아들 스마야에 대한 이러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보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의 집으로 갈 만큼 그를 신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야, 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들이 언제 올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러나 경건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나 같은 사람이 도망쳐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형벌은 사실상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샅꾼 선지자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가 거짓말을 하도록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대의 유다, 오늘날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스마야도 자신을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느헤미야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사람의 말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간 웃시야 왕의 운명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게 주장이었으니까요. 스마야가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안전하리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감히 성전에 들어간 웃시야 왕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만일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다면 자신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키드너는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의 생명과 명예를 잃었을 것이며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대의 자체를 위태롭게 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스마야는 유일한 거짓 선지자였는가? 아니요, 실제로 본문에는 느헤미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선지자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적의 계획에 응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계속되고, 상대가 전술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합니다.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15 그리하여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습니다. **1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며 크게 자책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줄 앎이니라. **17** 그 때에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느니라 **18**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가 많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임이요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음이었더라 **19** 또 그들은 내 앞에서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토비야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브월 셋째 날부터 엘룰월 25일까지 일하여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벽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일부만 재건해야 할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은 훌륭한 지도력 아래 단결하여 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된 작업은 선선한 가을날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은 계속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은 우리 교회 중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지적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삶을 사는 대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유대에 이끌려 삶을 살아갑니다.

18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람들은 가족 관계로 인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도비야를 따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부 사람들은 가족 관계로 인해 충실한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가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손상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까? 영어에는 nepoti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는 그의 반대에 가차 없었습니다. 벽돌과 회반죽이 비바람과 대적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력을 제공하는 반면, 느헤미야와 충실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6장의 마지막 구절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까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원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곳이면 어디에서나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8회기 느헤미야 5-6장입니다.